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홍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이사야 53:12)

일시 : 2월 26일(금) 저녁 7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이 열립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될 것입니다(눅 23:34).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으며 믿음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벧전 5:7). 여러가지 일로 분주할지라도 청지기훈련 참석을 우선하는 믿음의 실천이 따를 길 기대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오시길 청지기훈련 당일 많은 환jami 예상되니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끼 및 어린 자녀들을 위한 예배실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오시고 특히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지기훈련 세부안내 및 좌석은 본지 7면 참조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제1차 학습·세례식
(유아세례식/오후 3시 갈릴리움)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로마서 9:30~10:8)

인간을 진노의 그릇과 공
효의 그릇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
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전
에는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
었다(롬 3:23). 바울은 하나
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나
타났으며 여기에도 차별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거부되고 이방인은 받아들여졌다(롬 9:30~3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이들은 모든 힘을 합하여 자기의 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신의 의를 찾지도 않을 때에 그들의 삶은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아무런 다른 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진정한 의는 오직 믿음의 의이기 때문이다(롬 1:16~17, 9:16).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므로 율법에 따라 의를 얻으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여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저절은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이다. 바울은 이 상황을 넘어지는 돌로 설명한다(롬 9:32; 사 8:14).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들은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그 위에 세워지는 귀하고 견고한 돌이며 메시아를 상징한다(사 28:16). 이제 신약에서 이 돌은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무너지게 하는 돌이요 또 하나는 살리는 돌이다(벧전 2:6~8; 눅 2:34).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두려움이 없이 이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다. 결국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공효의 그릇이 되게 하였고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자기들의 종교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롬 10:1~2)라는 표현처럼 헛된 열심이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했던 것이 바로 저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자신들의 열심과 열정 속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의로운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의는 볼 수가 없었다(롬 10:3).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금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로 돌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로써의 율법에 종지부를 찍으셨다(롬 10:4).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음을 선포한다. 율법 없이, 인간의 힘조 없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나타났으며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된다(롬 3:21~22).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롬 3:31).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처를 취하고 계시니 더 이상 음부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불러올 필요가 없다(롬 10:6~7).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 거하지 않으신다. 성육신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믿음의 의를 설명해 준다(신 30:11,14). 문자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이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정하신 믿음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롬 10:8).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구원은 가까이 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받아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입술의 고백과 마음속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롬 10:9~10). 말씀은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아멘.

BUILDING THE CHURCH

¹Now at this time while the disciples were increasing in number, a complaint arose on the part of the Hellenistic Jews against the native Hebr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serving of food. ²So the twelve summoned the congregation of the disciples and said, "It is not desirable for us to neglect the word of God in order to serve tables. ...

³And these they brought before the apostles; and after praying,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⁴The word of God kept on spreading;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continued to increase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were becoming obedient to the faith. (Acts 6:1-7)

When the primitive church started, the apostles did a really wonderful job and the church kept growing and growing. The apostles' work was based on what Jesus Christ ordered them to do,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Mt. 16:18-19). This rock is the divine revelation and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Jesus is the actual builder of the church. He told His disciple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18-20). The apostles did exactly as Jesus commanded, but a problem arose, "Now at this time while the disciples were increasing in number, a complaint arose on the part of the Hellenistic Jews against the native Hebr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serving of food"(Ac. 6:1). There's no perfect church in this world, and problems always come up. In this particular case, two groups of people were being treated differently. The apostles could not handle this situation because they had other responsibilities. Let's look at how the primitive churches handled their problems, so that our church can be established nicely so that Jesus can build upon it.

All church leaders are limited. Christians need to accept this fact. There are numerous living souls coming to church, and inside complaints come. Why? The reason is because church leaders ignore or neglect something. Even with the very best pastors, elders, deacons, and teachers there is no perfect church. When a problem comes it is a really dangerous time. People get hurt. Some church members give up, others decide to leave, and still others reject the solution. The primitive church people did not leave or reject their church leaders; rather they stayed, listened, and prayed to solve their problems. They understood that their church leaders had limits. Do you like this church? If so, then please understand that our leaders are not perfect. I make mistakes. There are a lot of things I miss, but if we work together in Christ with the understanding of our limitations, then our problems can be solved and the church can continue to grow in Christ.

The Holy Spirit led the church in organization. Today's Bible

verses tell us, "So the twelve summoned the congregation of the disciples and said, 'It is not desirable for us to neglect the word of God in order to serve tables. Therefore, brethren, select from among you seven men of good reputation,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whom we may put in charge of this task. But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The statement found approval with the whole congregation; and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nd Philip, Prochor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olas, a proselyte from Antioch. And these they brought before the apostles; and after praying,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Ac. 6:2-6). Through prayer and listening, the Holy Spirit explains what our priorities should be. The Holy Spirit opens our eyes, so that we can recognize who or what to select. The primitive church selected seven deacons to handle their problems. These men were honest, spirit-filled, and wise men. They were chosen to serve the congregation by caring for church business. Their duties freed up the apostles for prayer and ministry. The Holy Spirit led the primitive church to sharing responsibilities in the church. We need to select appropriate leaders for our church business.

The Holy Spirit's organization led people to salvation. The church was united again. They prayed and became of one accord, "The word of God kept on spreading;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continued to increase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were becoming obedient to the faith"(Ac. 6:7). The congregation's obedience led to effective ministry and evangelism. The apostles were able to concentrate on the Word of God, to preach the gospel and increase the number of disciples. Congregational involvement with the Holy Spirit is always needed in the church. Troubles will come because the devil is still at work, but the Holy Spirit will always send the right person or persons needed to fix things. If we follow the Holy Spirit's organization, this church can experience an amazing revival, so that the gospel can save more souls.

My dear friends, do you understand that church leaders have limitations? Please forgive our church leaders for any wrong doings or neglect, and allow them to minister the Word of God. Please pray for all our church leaders to be strengthened and help them, so that they can proclaim the Word of God. Please don't condemn and criticize them, but rather look at what your duty—your sacrifice for Jesus Christ within this church. Let's listen to the Holy Spirit and let our church become one-minded, so that we can become great soul winners and everyone who walks through our church doors can find salvation. Amen. 

교회를 세우심

-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인과 사람을 원망하니”(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사도행전 6:1~7)



김성관 목사

초대 교회가 시작된 후 사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왔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 16:18~19). 이 반석은 거룩한 계시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고백을 말합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사도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인과 사람을 원망하니”(행 6:1).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면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의 터 위에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질지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내부적인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목회자들, 장로들, 집사들과 교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다른 교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도, 그들의 지도자를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서 경청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의 문제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교회를 체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

씀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나볼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행 6:2~6). 기도하고 잠잠히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누구를 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담당해 줄 일곱 집사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사무를 도맡아 하면서 회중을 섬기기 위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역할로 사도들은 자유롭게 기도와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초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책임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무를 맡길 적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지를 받아들이는 교회에 구원받을 자를 더하신다

성령님의 조직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 초대 교회 성도들의 순종은 더 활발한 사역과 함께 복음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성도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귀가 활동하여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십니다. 성령님의 통지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복음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과 무관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가 강건해지고 서로 도울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얻는 자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22

빌라도의 법정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과정에 빌라도가 있다. 특히 그는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을 필박하였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빌라도의 십자가행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정되었다. 마태와 누가는 빌라도의 법정(관청)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요한은 요한복음 18-19장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관청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왔으며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빌라도의 관청을 요청하였다(요 18:28).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공적 업무를 보는 관청을 나가서 종교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빌라도는 무려 세 번이나 관청을 오고 갔다(요 18:33,38, 19:4-6). 이에 대해 누가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판결을 위해서 세 번 오고 갔다고 기록하였다(눅 23:14,22). 또한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기 위해서 당시 강박하기로 소문난 강도 바라바를 같이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선택은 강도 바라바였다는 것도 요한과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였다(요 18:40; 눅 23:18).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계속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하였다. 이에 대해 요한과 누가의 설명은 똑같다(요 19:1,4; 눅 23:22).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요 19:6; 눅 23:21)라고 외쳤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압박을 빌라도에게 가하였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협박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요한과 누가의 언급은 비슷하다(요 19:12; 눅 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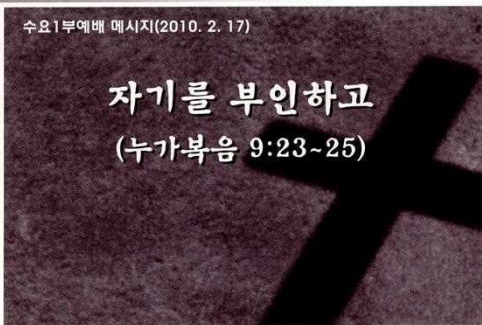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이나 종교지도자들과의

타협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분명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결정하였다. 빌라도의 용기는 결국 자신의 의와 명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빌라도와는 달리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까봐 빌라도를 법정 밖으로 불러내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하였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신약인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열정은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 뒤에는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가로챌는 예수의 제거라는 진짜 목적이 있었다. 결국 빌라도와 종교지도자들은 각각 정치적, 종교적 욕심으로 가득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빌라도의 법정에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빌라도는 결국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바로 종교적 위선과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빌라도도 자기 의와 명예를 갈망하는 우리의 실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우리다. 아직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성대고 있는가? 지금 즉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바음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지(2010. 2. 17)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23-25)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ash)의 수요일'이다. 나의 성공과 명예를 버리고 한 줌의 '재'로 시작하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자기는 나의 몸을 움직이는 모든 생각, 느낌, 자아상,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 모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마 16:24).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새 생명의 결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행한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명료한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와 다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뿐이다.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다. 나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세계관, 가치를 우선하며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십자가 지기를 포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를 존중하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요일 2:15-16).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운 뿐이다(요 8:12). 따라서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요 12:26).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갈 6:16-17; 엡 2:1-3).

●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경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눅 9:23-25)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구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의 삶을 약속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사 43:10).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눅 8:14, 12:19-21). 우리 자신이 절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전 6:7).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요일 1:3).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를 행해서 주님은 경도하셨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후 5:6). 결국 지옥에서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이다(마 8:11-12, 25:30).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다투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믿음의 삶은 추상적이지 않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양의 목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목자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목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7-9).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경도를 기약하여 매순간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 우리는 재(ash)다. "내 뒤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아멘.

앞선 나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 동안 언어, 문화, 풍습 등을 익히며 준비했으나 준비하면 할수록 부족함과 초조한 마음은 더해만 갔다. 조금 더 조금 더 준비하기를 몇 번, 출발일이 임박했지만 역시 부족하고 초조한 지 마찬가지였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엡 6:19), 말씀을 믿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리라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막상 현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란 너무나 미흡하고 그 부족했다. 언어 장벽을 실감하며 일반적인 복음 선포로 현지인의 의증을 전혀 알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선교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며 권태로움으로 지치고 나타내져 갔다. 이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의 말씀과 "부리는 자와 거둔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한 한 사람이 실패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요 4:36~37)라고 주님은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지 않았는지, 앞서 갔다면 긍휼을 베풀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회개로 재충전한 후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양적인 선교보다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니 답답하고 무거운 선교 사역이 즐거움으로 다음 날이 기다려졌다. 내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거두리라 믿는다. 여전히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상들로 들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순수한 영혼들은 탄압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윤상철(안수집사, 22교구)

선교지에서 온 편지 ①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현교회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교회의 간부를 여러분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저의 가족과 함께 여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았으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저의 모든 사역을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도 바로 여기 우크라이나에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9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의 단소는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사람들이 아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저나 혹은 다른 누구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것에 날, 정확히 아침에 저와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사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 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따라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송요원(현지인 선교사) *러시아어 번역은 김용원(전도사(외전부)) 하신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됨을 감사하면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첫날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전도 대상이 한정된 우리 팀은 막상 연결

과리로 생각하고 찾아 간 기관과 학교들이 짧은 휴가나 방학 중이었다. 선교 시기를 잘못 택했나 싶었지만 몇 개월 동안 훈련을 준비시키었고, 직장을 가진 팀원들은 연말의 바쁜 시간을 쪼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농악학교에서 근처에 있는 농악인들의 일터와 모이는 장소를 알아냈다. 첫날은 그들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교도 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주위의 친구들을 소개받았다. 우리는 매일 그 학교를 기점으로 복음사역을 하였다. 친구에서 또 다른 친구로 매일 다른 얼굴들을 보내주었다. 고구마를 캐듯 우리 팀원들도 신이 났다. 오히려 방학이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좋은 시기가 되었다. 문화가 개방되어 '예수'를 들어 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는 드물었다.

그 중 한 친구는 여러 번 전도를 받았지만 의심만 가지다 이번 우리 팀의 전도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였고 매일 학교로 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와 우리가 떠날 즈음의 표정이 확실히 변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은 빛과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다. 방학이어서 잠깐나마 열려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빌 4:6). 주님이 그곳에 예비한 영혼이 있었고 우리 팀을 사용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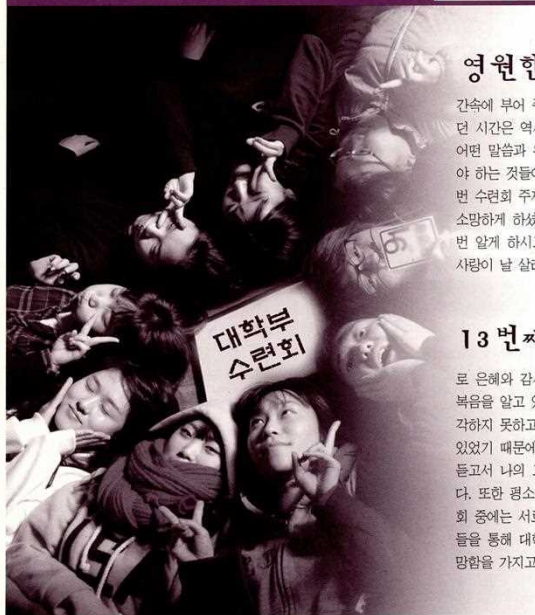
남은희(전사, 에바다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7일(수) ~ 2월 24일(수)	중등부 3팀	김영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1일(목) ~ 2월 19일(금)	대학부 1팀	임광선
2월 11일(목) ~ 2월 19일(금)	대학부 2팀	김희동
2월 15일(월) ~ 2월 20일(토)	중등부 1팀	박원화
2월 15일(월) ~ 2월 20일(토)	중등부 2팀	윤병식



영원한 천국을 소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수련회 참석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는 수련회가 매년 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속에서 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수련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도 가장 기다리던 시간은 역시 부흥회였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우하루 힘겹게 살아왔던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만엔 어떤 말씀과 위로로 주실까 기대되었다. 사실 이 땅에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살전 4:13~18)을 통하여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삶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다. 또한 이러한 소망은 다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날 살리셨으며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조상미(대학부)

13번째 수련회

어느덧 대학부 7학년이 되었고, 나는 13번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련회 2주 전부터 기도와 소망함으로 나아간 수련회는 참으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나에게 큰 은혜였다. 나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말로만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나의 헛된 생각으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서 나의 고난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또한 평소소 대학부 자체 간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이번 수련회 중에는 서로 모르는 지체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수련회 기간에 있었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대학부가 서로 친해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과 한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심재원(대학부)

거울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아·유아·유치·초등1·2부 거울성경학교가 3월 1일에 열린다.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인 때에 그들을 만났다.

▶ 말씀, 찬양, 성경 이야기, 만들기, 단체 특별놀이, 구연동화, 인형극 등 유아부(3~4세)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교회로 오셔서 최고의 가족나들이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선자(교사, 유아부)



▶ 저는 '예수님 만들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의 마음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으니 자녀들과 함께 꼭 오세요. 임이희(교사, 유아부)

▶ 지난 여름성경학교 때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을 재미있게 배웠던 것이 기억나요. 이번에도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 같는데 무척 기대되고, 장효민(초등2부)

▶ 1월에는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성경학교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걱정한데 3월 1일로 옮겨져서 좋아요. 반향이 아니라서 더 많은 어린이가 올 것 같고요. 더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희(교사, 초등2부)

▶ 어린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자녀들이 성경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예정호(교사, 초등2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죄를 자백하는 자의 설교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의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용서를 비는 연약한 자의 설교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았던 많은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감동 속에서 그를 엘리야, 엘리여야, 혹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술을 즐기는 자, 죄인들의 친구, 놀기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적 앞에서는 귀신들의 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이들에게 예수는 절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임이 너무도 명확한데도 그들의 눈은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대신 이루어 줄 메시아를 필요로 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인 힘으로 자신들에게 현재의 부귀와 평안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이 설명 예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주님은 그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저는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고백은 신앙의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여러서는 유대인들과 손가락질하고, 실수하는 베드로를 보며 허를 차면서도 내 삶은 전혀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시당하는 건 왜 그리도 견디기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정한 생각과 기준에 맞는 성경 구절만, 나를 높여 주는 예수만 필요로 하는 저에게 예수는 그저 필요할 때만 깨는 도구일 뿐입니다. 높아지는 자리에는 항상 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를 밟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신앙인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을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안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로 하여금 당신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내 입술이 당신만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난 찬양대배 설교(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3-17를 들은 한 성도의 간증)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기대하며



양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청지기훈련은 특별한 은혜를 등록 누리는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도'에 관련한 청지기훈련의 말씀은 나에게 '기도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최병일집사, 5교구

나의 수고로 인해 많은 성도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기쁨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집사를 위해서 차량안내위원들의 지시에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서로 알아보며 집사를 지킨다면 청지기훈련은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윤선환인수집사, 차량안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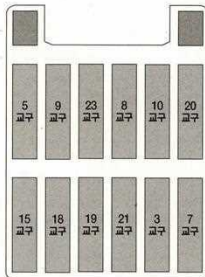
성도님들을 안내하다 보면 청지기훈련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청지기훈련을 위한 기도과 말씀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청지기훈련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리 주시는 청지기훈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박광석인수집사, 예배안내위원

청지기훈련 좌석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안내

- 이번 주 화요일 기도원집회 및 금요구역예배는 쉽니다. (금요일 기도원집회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 청지기훈련 시 부를 찬양을 미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주가 겔손·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감람산 깊은 밤중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기도·너 생결기 위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두운 내 눈 밝히사·오 주여, 지비를 배후소사)
- 탁아부살신교관 1층, 0~3세:작은 방, 4~7세:큰 방을 운영하오니 이용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제1교육관 1층, 3세 이하), 베다니홀(본당 1층, 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모든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량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됩니다.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 시절에 제 신앙을 알고 있던 터라 변질되어 있는 저를 만나 끼워줬고, 한 번만 따라와 보라고 권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한 번만 가 보자." 기도는 잊어버린 지 오래 되어 기도 시간엔 눈을 뜨고 있었고, 찬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회회를 가는 중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날은 운전 중 길을 헤매다 예배시간에 늦었습니다. 둘째 날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망설이다 부랴부랴 교회로 향했고, 셋째 날은 제 앞에서 달리던 차가 순간 뒤편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충돌할 차례였던 제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일을 맞이 하루 전, 등산 중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결국 3개월 깎스를 하고 목발로 단다가 지금은 잘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조종인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조종이라면 전 그 시간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중이니 승리한 것이겠고,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교회에 다닐 면목도 기도할 자신도 없던 터였는데 차라리 살짝 벌을 받으시 죄가 갚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제가 아직 천원교회에 남아있을지는 알

선한 목자, 예수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군병들에게 제 기도를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고 싶은 마음과 친구의 권유로 새신자반에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받으며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순해지고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제와 어느 새 기도하고 있는 저를 느껴 새롭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주일 찬양예배 말씀 중 "Do you have a shepherd?" (목자가 있으세요?) "Yes, I do." (네 있어요.) 제 머리 속은 아직도 세상 것들로 잡다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그의 첫사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선택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주(새가족양육부)



♡ 새가족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4	장민경	9	대학부	이은(1)
175	윤성욱	14	장년3부	김영구(4)
176	유문초	6	장년3부	이은(6)
177	김종보	22	대학부	이은(19)
178	박종진	2	장년1부	신누리(2)
179	하승희	22	장년1부	이은(4)
180	홍원용	17	장년2부	홍수영(11)
181	민강식	17	장년2부	김종구(11)
182	강병만	9	장년1부	이은(1)

※ 중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